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창립 19주년 감사예배

20권 28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갈보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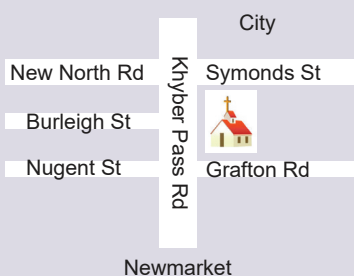
1. 오늘은 교회 창립 19 주년 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주의 몸 된 교회로 섬겨 가길 소망합니다.
2. 성경 통독 150일 운동의 대장정이 마무리 되는 주간입니다. 말씀 목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이번 주 범위는 베드로전서 2장부터 요한 계시록 22장까지입니다).
3. 교회 건너편 오리온 건물 주차장이 Wilson Parking 유료 주차장으로 변경됨으로써 주차 공간이 줄어들 불편합니다. 주차 봉사자들의 안내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교사들을 위한 교육이 7월 21일 토요일 교회에서 있습니다(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5. 창립 주일을 맞아 연도 별 바누아투 단기 선교 사역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살펴 보시면서 선교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6. 창립 주일을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이모저모로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7.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섬기는 사람들



주일 1부 예배 주일 AM11:20
주일 2부 예배 주일 PM1:00
청년 예배 주일 PM3:15
수요 예배 수요일 PM7:30
새벽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이성철
부목사 : 박태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2018년 7월 15일 주일

담임목사: 이태한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주일 2부 예배

오후 1시

찬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시편 96:1-3
◎ 찬송	빛나고 높은 보좌와 27장
◎ 신앙 고백	사도신경
찬송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
대표기도	이광희 장로
성경봉독	디모데전서 3:14-15
찬양대 찬양	하나님의 사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태한 목사
찬송	내 주의 나라와 208장
헌금기도	인도자
축하연주	피아노 3중주/이혜경집사외 2명 바이올린 2중주/성다운, 성다솔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7월 교회 사역

7월 4일(금요일): 저녁기도회
 7월 15일(주일): 창립주일
 7월 21일(토요일): 교육세미나(교사)
 7월 29일(주일): 권사기도회

7월 기도 순서

이번 주 애찬: 김민경 사모
 다음 주일: 정혜숙 권사
 다음 주일 청년부: 김효설 자매
 7월 25일 수요일: 김영옥 권사
 7월 25일 애찬: 황경임 집사
 7월 29일 주일: 김병진 목사
 7월 29일 청년부: 김준섭 형제

7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이진아/이광희
 새신자안내: 차영철/심경순
 주차 안내: 고석승/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김명옥
 김민경/민경아

금주의 기도제목

1. 창립 19주년을 맞는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는 투병 중인 성도(경덕현, 조은희, 김경수, 한상순, 임병숙)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창립 주일을 맞는 감사와 소회(所懷)의 글입니다.

창립 19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9년 동안 함께 교회를 섬겨온 성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인간 세상의 19년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19년은 세월의 무게보다는 훨씬 깊은 이백 이십팔개월이었습니다. 왜냐면 형극과 질곡의 순간들을 극복하여 정금 같이 나오는 산고의 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간섭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모난 것이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세월의 파도도 능히 건너갈 방주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기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입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어미가 아픈 자식을 품에 안은 듯 고난 받는 교회를 품은 못 성도의 가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심장이 되었고 고통에 내몰린 교회를 보며 말없이 흐느끼며 울었던 눈물의 기도는 값진 진주 목걸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인생의 부침에도 굴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히 자리매김 하는 성도로 단련되었기에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전벽해보다 더 빨리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절대 진리에 대한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서운 현실이며 갈수록 심하게 요동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부동의 자세로 인고의 세월 속에서 배우고 체험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응전의 선포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만이 구원자라는 절대 신앙을 말입니다. 세상의 도전이 아무리 거세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2천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로마의 박해도, 교황의 핍박도, 히틀러의 살상도, 일제의 무자비한 고문에도 교회는 세워져 왔습니다. 왜냐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년을 목전에 둔 갈보리교회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보리교회를 함께 섬기며 어떤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성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태한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청년 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김순자권사
성경봉독	고린도 후서2:12-17
설교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이태한목사
찬송	523장
주기도	다같이